

겸손과 인내, 배려를 알려준 깊고 깊은 순수의 뜨거운 눈물



리더의 책장

이 정상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눈면 별치기

홍기, 성바오로출판사, 절판

홍릉에 위치한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신경호 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신 박사는 메트로신문 '리더의 책장'의 저자로 추천했다. 신 박사는 내게 "40년 가까운 의사 생활 중 각계각층의 다양한 환자를 진료하며 보호자·가족들과 의논하고, 많이 듣고 느낀 수많은 풍월도 있을 것"이며 "평소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하다고 여겨온 터라면서, 이과생인데도 서울 의대 교수인 나를 추천한다"고 전해왔다.

글 쓸 시간도 없는 외중에 수락하고 보니 책임감에 그동안 읽고 감명받은 여러 책들을 떠올리며 연구실에 있는 11개의 책장 서고를 뒤졌다.

우연히 "눈면 별치기"라는 빛바랜 초록색 소설책이 눈에 띠었다. 1994년경에도 우연히 이 책을 선물 받아 읽게 됐는데, 또다시 운명처럼 뇌리에 줄거리와 그 감명이 한순간에 떠올랐다. 뇌리의 스친 감명에 내 깊은 시절도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150쪽 쯤 되는 이 책은 내 깊은 시절 겸손과 인내 그리고 배려를 가르쳐줬다.

당시엔 중증고난도 심혈관 및 호흡기흉부종양 질환이 주 진료대상이라서 흉부외과 전문의가 오면 그 병원은 순식간에 최고등급병원으로 평가받던 시절이 있었다.

이름에 걸맞게 생명이 위태로운 심장병, 농흉, 폐암, 식도암수술, 교통사고나 칼에 찔려온 대량 출혈 중환자들을 살려냈다. 집에 거의 못가면서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외래진료실과 연구실

에서 항상 지내던 전임강사-조교수 시기이기도 했다.

대학에서 필수전공 과목이라서 의대생강의도 참 많이 했다. 고난도 흉부심장 혈관외과 분야 진료 속성상, 종증 중환자를 돌보는 일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 내 팀은 누구보다도 사망률이 적다고 자존감 너머 조금은 교만하기도 했던 30대 중후반 시절도 있었다.

웬만한 대학병원보다도 더 심장질환에 특화된 부천세종병원에서 심장수술을 집도하던 막내 심장외과으로 근무하다가 주임교수님 명령으로 자랑스럽게 모교 교수로 발령받았다. 세상 부러울 게 없었고 실제 열심히 일하고 순수함 그 자체로도 하루하루가 참으로 뿐듯했다.

아버지는 나에게 늘 겸손하고 환자에게 다정다감하게 대해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다.

내딴엔 한자 교육 세대답게 한문과 역사지리를 좀 아는지라 유교적 문화권의 당연한 측은지심, 겸양미덕과 인내 그리고 배려하는 공감경청하는 태도를 위해 항상 애쓰기도 하던 좋은 신끼가 아우라처럼 따라다녔다. 되돌아보면 영롱한 아침이 슬처럼 깨끗함 그 자체이며 아름다운 깊은 전문가의 하루하루 보람찬 생활의 연속이었다. 서울대 개교 아래 서울대 교수협의회장이 된 첫 의대교수가 된 것도 이런 신끼 탓이 아닐까.

책 이야기로 돌아와서 꿈속까지 포함해 하루 25시간 일해 피곤한 일상이었지만 그러다가 정말

로 우연히 "눈면 별치기"라는 150쪽이 안되는 길지 않은 소설을 단번에 읽으며 말로 표현하기 힘든, 종교적 신비체험같은 경험을 하고 눈물을 많이도 흘렸다.

아마도, 모두가 어렵게 살던 시기인 1974년에서 1980년사이 강원도 춘천에서도 소양호를 지나 있는 가리산 외진마을이 소설의 배경이다.

주인공의 아버지는 산속 별장에서 무책임한 동료의 안전불감증으로 말미암은 사고로 하반신 장애인이 돼 버렸다.

주인공은 치료 가능할 수도 있던 눈 병의 골든 타임시기를 놓치고 결국 후천성 눈면상태로 살아가며 힘중한 산속 별치기로 생계를 이어나갔다. 불우하고 열악한 환경의 불쌍한 30대 젊은이의 이야기 속에서 독자는 인간 본연의 순수함과 착함이 모든 슬픔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과정이 한편의 다큐멘터리처럼 묘사됐다. 일단 책을 읽으면 단번에 끝까지 볼 수밖에 없으며, 책장을 넘길 때마다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나와 스스로 놀라기도 했다.

그 책을 읽은 후 더 착하게, 더 순수하게 살아야겠다는 염원의 종교적 신비한 에너지가 용솟음 쳐오르면서 더 선해지고 참삶의 용기가 생기고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 나던 기억이 새롭다.

우리나라가 최근 부유해지면서 숲과 강물, 바다 올챙해지고 보기도 좋아지고, 꽃도 예쁘게 만

발한다.

하지만 그 이면엔 봄만 되면 산불과 미세먼지에 시달리며, 산업·경제·환경과 사람들의 마음 건강은 척박해지고 걱정은 늘어만 가고 있다. 극단적으로 더위지고 추워지는 우리 이상기온·기후환경, 개인소득 3만 달러가 넘은지도 몇 년 됐지만 서로 미워하고, 우리끼리 분열돼 서로에 대한 적개심과 상대방 탓만하는 '소인배태도와 분노감', 만연하는 비정상적인 '우리 현실과 가상세계 분위기', 착한 척하면서 이를 악용하며 권모술수 사심 가득한 '미사여구의 달인', 악마성 소유자들의 '병적 정치·사회환경', 희생·봉사정신없는 '위선적 종교인들', 공정평가를 가장한 '인성 실종된 교육환경', 승자가 독식하는 '잘못된 자본주의 시장', 다수결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잘못된 민주주의', 거짓과 선동적인 가짜뉴스로 광고수입에 목적하는 '사이버 네티즌 세계', 소수를 배려못하는 '다양성 존중 결핍' 병적 분위기들이 횡행하는 요즈음에 실화 소설 한편을 추천하는 바다.

매일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공감배려와 겸양과 순수함의 그 자체이며 가감없는 실화소설 "눈면 별치기" 일독을 꼭 권하는 바이다.

참신양 종교인이 아니라도, 깊고 깊은 순수의 뜨거운 눈물이 치유와 힐링의 주말을 분명히 느끼며 참 리더로서 거듭날 것이라는 소망을 바라면 서글을 마친다.

주말은 책과 함께

글 안 쓰는 사람에서 글 쓰는 사람이 되는 기적

웹서핑을 하다가 '교수님 울리는 법'이라는 제목의 유머 글을 본 적이 있다. 방법은 간단했다. "세미나에서 자신이 쓴 석사 논문을 읽게 하면 된다"였다. 우리는 안다. 연구를 잘한다고 해서 집필 실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공부를 평생 업으로 삼겠다 다짐한 이에게도 글쓰기는 고역이다.

"카프카의 가장 분명한 장점은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솜씨이다. 단 몇 행만으로 그는 영원히 남을 상처를 새겨 넣는다."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의 거장인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가 프란츠 카프카의 단편을 묶은 선집을 폐내며 책의 앞장에 실은 문장이다.

카프카의 '독수리'를 안 읽고는 배길 수 없게 만드는 찬사다. '쓰기의 말들'은 보르헤스처럼 간결하고 멋진 문장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글짓기를 열망하는 이들에게 추천하는 책이다.



쓰기의 말들

은유 지음/유유

"나는 글쓰기를 독학으로 배웠다"라는 말로 책은 시작한다. 전업 작가가 아닌 평범한 주부였던 저자는 한 선배의 요청으로 사보에 자신이 쓴 글을 얹게 되면서 읽는 사람에서 쓰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독자가 분명치 않은 비매용 기업체 정기 긴행물을 누군가 한 사람을 본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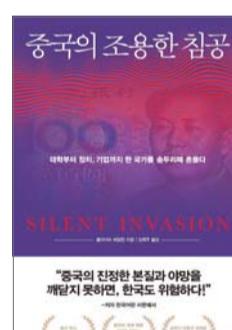
마음으로 공들여 글을 썼고 거짓말처럼 이를 알아보는 사람이 생기며 신망을 얻게 돼 작가로 살아갈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저자는 고백한다. "문필 하청업자의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나만의 문장 노트가 수십 권 쌓였다. 어느 순간이 되자 나는 '다른 글'을 쓰고 싶어 몸이 달았다. 내 몸에 투입되는 문장과 내 몸이 산출하는 문장의 간극을 겪닐 수 없었다." 사람은 '내가 바라는 나'와 '현실의 나'가 다를 때 좌절을 겪고 우울감에 빠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작가는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냈을까? "글을 안 쓰는 사람에서 글을 쓰는 사람이 되는 기적. 자기 고통에 품위를 부여하는 글쓰기 독학자의 탄생을 기다리며 '쓰기의 말들'이 글쓰기로 들어가는 여러 갈래의 진입로가 되고 각자의 글이 출구가 되어 주길 바란다"는 말로 저자는 서문을 마무리한다.

229쪽. 1만3000원. /김현정 기자 hjk@

중국의 조용한 침공

클라이브 해밀턴 지음/김희주 옮김/세종서적

총과 미사일이 오가는 것만이 전쟁은 아니다. 중국의 로비를 받은 정치인들이 중국 기업과 공산당이 들어오기 좋은 정책을 만들고 중국 기업들은 호주의 땅과 기업을 무서운 속도로 사들인다.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상황을 보도한 현지 신문사나 방송국의 광고를 빼는 식으로 언론을 통제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중국의 입맛에 맞는 정보와 역사, 문화 교육이 진행된다. 중국은 파산 위기에 놓인 세계 여러 나라들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그 나라의 중요 거점 시설을 손에 넣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국의 진정한 본질과 악장을 깨닫지 못하면 한국도 위험하다"고 저자는 경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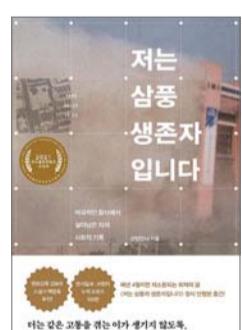


500쪽. 2만2000원.

저는 삼풍 생존자입니다

산만언니 지음/푸른숲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2분,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20초 만에 무너져 내렸다. '사망자 501명, 부상자 937명, 실종자 6명.' 책은 간별의 차로 사고를 벗어난 생존당사자가 고백하는 '참사 이후 이야기'다.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뭐라도 해야 했기에 저자는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내가 겪은 사고 이후의 고통을 생생하게 잘 적어 놓으면, 이를 모르고 살던 수많은 사람이 참사가 주는 비탄이 어떤 것인지 공감할 테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시행사와 시공사도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감리기관은 꼼꼼하게 관리 감독할 것이며, 해당 공무원은 인허가 기준을 확실히 세울 테니까." 256쪽. 1만6000원.



▲ 정부, '화산 폭발' 민주콩고에 30만 불 인도적 지원
▲ 바이든, 유럽서 첫 해외 순방… "미국이 돌아왔다"

/사진 뉴시스

▲ 미얀마, 국경없는 의사회에 활동 중단 명령… 에이즈·결핵 환자 타격
▲ 엘살바도르 대통령 "화산 지열 이용해 비트코인 채굴"



▲ 미국부 "北 인권 상황 개선, 장기 대북 해법에 필수" /사진 뉴시스
▲ 中외교부 "미국 추진하는印太전략 냉전적 사고방식 가득차"

버스티비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